닛신보 - 경편의 교편소재로 면사의 수요개척

일본의 동해안에 있는 호꾸리꾸(北陸) 산지의 여성 속옷용 경편지(經編地) 생산 기업들 중에 닛신보의 순면사를 사용하는 공장이 늘어나고 있다. 닛신보가, 경편기에 바로 얹힐 수 있는 빔(beam)에 감아서 공급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합섬이 많이 사용되는 경편기에서 면사가 교편(交編)용으로 사용되면서 호평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편성은 면사로 덮인 면이 피부와 접촉하도록 되어 있다. 경편지의 면사혼용률은 10 20%에 불과하지만, 새로운 용도를 개척하는 데 성공한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면사를 사용하는 데 아직 익숙하지 않은 호꾸리꾸의 경편공장들에게는, 면사에서 날리는 먼지가 공장 안의 공기를 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계나 제품 등 온 공장 안에 먼지가 소복히 쌓여서, 화섬사만 사용하던 공장으로서는 먼지에 대한 저항감이 강하다. 그 동안 이런 사정이 면사 사용을 반기지 않는 요인으로도 되어 있었다.

닛신보는 경편기의 빔에 정경(整經)하는 시설을 갖추고, 주문에 따라 정경빔을 공급함으로써 시장개척을 꾀하였다. 빔에 원사를 감는 작업은, 원래 경편공장이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방적공장에서 맡아줌으로써 저항감을 줄일 수 있었다. 닛신보는 정경 전에 면사의 잔털을 줄이고, 또한 실의 강도를 올리는 가공을 하여 편성중의 사절을 줄여 주었다.

닛신보는 경편을 위한 정경을 약 10년 전부터 시작하였는데 좀처럼 수요가 늘지 않았었다. 그래도 일부 차별화 제품을 개발하려는 몇몇 경편업자의 협력으로 시장개척을 단하지 않고 노력을 기울이며, 경편에서 면사를 사용할 때 생기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였다. 닛신보는 4년 전 빔에 감을 때

의 텐션(tension 장력)을 균일하게 조정하기 위한 컴퓨터장치를 직영(直營) 도야마 방직공장에 2대 도입하여 편성작업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편성지의 품질안정을 도모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들이 결실되어 작년부터 수요가 늘기 시작하였다. 닛신보의 판매 담당 책임자는 “경편의 교편용 소재로써 면사가 인정받게 되었으며, 면사의 판매량도 목표수준으로 늘었다”고 한다.